

# “원당암에 갈 수 없다면 큰스님 사리라도 친견하자”



겨울비가 오는 중 마는 등 했다. 비구름은 여전히 흠뻑 젖어 산허리를 덮고 있었다. 공방(工房) 마당까지 굴러온 가랑잎들은 더 이상 뒤척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겨울비에 젖어 마당 곳곳에 파충류의 허물처럼 난감하게 붙어 있을 뿐이었다.

대연(大然)거사는 앉은 자세로 발을 새우다 새벽 무렵에야 눈을 좀 붙였다가 됐다. 또 뜬눈으로 밤을 보낸 셈이었다. 가랑잎 구르는 소리에 발을 새웠던 것이다. 가랑잎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철물소리처럼 아득했다가도 물이 들어오는 밀물소리처럼 또렷하게 귀를 맴돌았다. 가랑잎은 세월의 질곡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파열을 같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실패와 좌절이 더 많았던 대연거사로서는 자신의 가슴을 치는 소리로 들었다. 그 소리들이

지내는 사이인지 그곳 스님에게 대연거사의 소식을 듣고 공방까지 올라왔던 것이다.

각안 스님은 해인사 원당암을 떠나 송광사 포교극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면서 보성군 문덕면에 위치한 봉갑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었다. 천봉산 산자락에 자리한 봉갑사는 영광의 불갑사, 영암의 도갑사와 함께 호남의 삼갑(三甲)이라 불리며 한반도의 국운을 주춧돌처럼 지탱하고 있다는 도선 국사의 비보종수가 서린 유서 깊은 절이었다. 각안 스님은 언제 보아도 침향처럼 온몸이 맑았다.

“거사님, 몇 년 만인가요. 대학을 그만두고 남도산 중에 공방을 지어 내려왔다는 얘기를 쌍봉사 주지 스님한테서 들었습니다.”

“스님을 뵈지 6년 만이네요.”

“원당암에 오래 계실 것 같더니 왜 떠나셨습니까.”

대연거사는 각안스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스님은 은사 해암스님이 입적한 후에도 원당암에 남아 ‘해암스님의 사리탑도 조성하고 법문집도 발간하겠다.’고 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며 진정한 시봉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인연이 다한 것이지요. 봉갑사에 있으나 원당암에 있으나 큰스님을 시봉하는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그러나 원당암을 떠났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스님 사리를 몇 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갑사에 큰스님의 사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법당 안의 보각(寶閣)에 모시고 있습니다. 대연거사님, 언제든지 오셔서 친견하십시오. 아마도 큰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평생을 오직 일주일만 생각하며 일주일 후 깨닫지 못하면 태평양 바다에 빠져죽겠다는 각오로 정진하셨다는 말씀에 숙연해지곤 합니다”

깊긴 것은 새벽녘에 겨울비가 추추추추 내렸기 때문이었다. 어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겨울비는 수면제와 같았는지 의자에 앉은 대연거사를 잠깐 졸게 했던 것이다.

무량광도에(無量光陶藝) -

대연거사는 공방 현관에 놓인 대빗자루를 들었다가 놓았다. 마당에는 가랑잎뿐 아니라 알뜰달록한 갈나무 잎까지 떨어져 있었다.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다고 했던가. 낙엽은 쓸지 알아도 바람을 만나 제 갈 길을 찾아갈 터였다.

공방 안은 장작이 타는 화목난로가 있어 따뜻했다. 뜨거운 김을 내뿜는 주전자에서는 찻물이 끓었다. 대연거사는 다관에 발효차 잎을 넣고 팔팔 끓는 물을 부었다. 잔에 부어지는 찻물은 달빛과 흡사했다. 찻잔 밖은 소나무 껍질빛깔이었지만 찻잔 안은 백자 유약이 발라져 불그스레한 찻물이 더욱 도드라졌다. 다관과 찻잔은 물레질을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만 만든 다기였다. 교통사고로 어깨뼈를 다친 후 물레질을 할 수 없는 고통스런 처지에서 작안해낸 작은 다기들이었다. 앞으로도 완력이 필요한 큰 작품들은 어깨뼈가 완치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 그러나 대연거사는 공여지책으로 작은 다기들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차는 각안 스님이 놓고 간 발효차였다. 지난 날 각안 스님이 공방을 느닷없이 찾아와 발효차를 한 봉 주고 갔던 것이다. 공방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에 쌍봉사가 있는데, 각안스님은 쌍봉사 스님과 친밀하게

정확하게는 6년이 조금 못되었다. 해암스님이 열반에 든 다음해에 출가하려고 원당암을 찾아가다가 각안스님을 만나 입산을 포기했던 것이다. 그때 각안스님은 은사인 해암스님이 남긴 법문 테이프를 여러 개 주면서 반드시 출가해야만 불법(佛法)을 깨달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던 것이다.

“한 달 후면 해암 큰스님 7주기이군요.”

“바쁘지 않으면 해인사 원당암으로 오시지요.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더니 어느새 7주기입니다.”

“큰스님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늘 숙제를 하지 못한 학생 같은 기분입니다.”

“큰스님 법문 테이프는 들어보셨습니까.”

“저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평생을 오직 일주일만 생각하며 일주일 후 깨닫지 못하면 태평양 바다에 빠져죽겠다는 각오로 정진하셨다는 말씀에 숙연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을 가야산 정진불이라고 합니다. 참선 수행자로서 본분사(本分事)를 저버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평생 동안 입적하실 때까지 늙지 않았던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각안 스님은 해암 스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됐다. 차를 마시고 나서야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다.

“저는 지금 봉갑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송광사 포교극장 소임도 겸하고 있고요.”

대연거사는 그렇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봉갑사로 가 해암 스님을 뵈고 싶다는 마음이 사무치게 솟구쳤다. 해암 스님이 해인사 방장스님으로 계실 때, 실제로 친구인 기사를 따라 내려가 친견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각안 스님이 원당암에 있는 줄 모를 무렵이었다. 해암 스님이 입적하기 2년 전의 일로 인터부하러던 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해인사를 내려가 방장실인 퇴설당에서 스님을 뵈었던 것이다.

친구의 강권으로 휴강까지 하고 내려가 해암 스님을 뵈었는데, 친견하면서도 단호하고 결기를 풍기는 말투가 두근두근 생각났다. 그때 기사인 친구에게 자신의 고통을 대신 물게 했는데, 스님은 진흙으로 불상을 조상(造像)하는 것처럼 고통과 번민을 기쁨으로 환치해버리는 수행자의 방식으로 말씀했던 것이다.

-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몇 년째 신을 하고 있습니다. 도예를 하는 친구인데 부러진 양쪽 어깨뼈의 상처가 깊어서 물레질을 못한다고 합니다. 힘쓰는 일을 못하니 흙을 만지지 못하고 강의만 한다고 그러는데 괴롭다고 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저것거리 사람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인과법칙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인과법칙 속에 있습니다.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자작자수(自作自受)입니다. 내가 지어 내가 받을 뿐이지요. 하늘이 주고 땅이 주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은 분명코 없습니다. 알고 보면 전부 내가 지난날 만들어 왔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달게 받아야 합니다. 내 빚 하나 갚았다 생각해야 합니다. 업을 지어놓으면 무량겁을 지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받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 하나 갚을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 나로서는 즐겁고 기쁠 때구나 하고 생각할 일밖에 없습니다. 인과법으로 보자면 빚을 진 내가 빚 갚을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 빚 갚을 시간이나 하고 좋은 일로, 행복으로, 감사하라는 생각으로 돌려야지 사람을 원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은 분명코 없습니다. 알고 보면 전부 내가 지난날 만들어 왔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달게 받아야 합니다”

망하고 또 자기가 당한 사고를 재앙으로만 생각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대연거사는 차를 두어 잔 마신 뒤 일어섰다. 달력을 보니 공교롭게도 내일이 11월 17일(음력)로 해암 스님 7주기 날이었다. 비는 더 내릴 것 같지 않았다. 비구름이 쌍봉사 경내까지 내려와 쌍봉사 가랑들과 삼층 목탑은 운무 속의 일엽편주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그래, 해인사 원당암으로 갈 수 없다면 봉갑사에 모셔져 있다는 해암 큰스님의 사리라도 오늘 친견 하자.’

대연거사는 마음이 격동되어 참을 수 없었다. 봉갑사는 공방에서 승용차로 3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대연거사는 공방 문을 잠그고 난 뒤 승용차를 탔다. 화순군 이양면에서 보성군으로 넘어가는 계당산 산자락의 재를 하나 넘어면 바로 북내면 소재지가 나타나고, 봉갑사가 자리한 문덕면 천봉산 산자락은 북내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도로는 겨울비에 젖어 축축했다. 봉갑사 가는 길의 빛나무 가로수는 앙상했다. 나뭇잎 하나 용납하지 않는 비장함이 어떤 일인지 아름답게 보였다. 차갑게 드러난 저 나뭇속의 혼(魂)들이 봄을 기다렸다가 화려한 꽃잎으로 반발할 터였다.

대연거사는 봉정교 입구에서 좌회전을 하여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봉정교 머리에 ‘천봉산 봉갑사’라고 쓰인 입간판 이정표가 보였던 것이다. 산길 오른쪽으로는 제법 큰 호수가 보였다. 그러나 지난 가을

내내 지독한 가뭄에 시달린 호수는 거대한 웅덩이처럼 바닥이 말라가고 있었다. 대연거사는 승용차에서 내려 호수 건너편에 지어진 학교로 추정되는 건물을 바라보았다. 시멘트 2층 건물 중앙에서는 붉은 깃발이 펄럭였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불교를 상징하는 깃발이었다. 원래는 학교였으나 지금은 봉갑사에서 문화원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분명했다.

그때 산길 저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젊은 스님이 바람을 메고 산길을 걸어내려 오고 있었다. 대연거사는 먼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젊은 스님이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봉갑사 각안스님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스님께서 마친 절에 계십니까. 오늘은 송광사에 가지지 않는 날입니다.”

젊은 스님은 곧 장삼 자락을 떨치며 바빠 사라졌다. 대연거사는 다시 승용차로 산길을 달렸다. 봉정교에서 봉갑사까지는 직적이었지만 천봉산의 산자락들이 험준하고 산모퉁이들이 여러 번 굽어져 절로 가는 산길은 실제 거리보다 멀게 느껴졌다.

천봉산 산봉우리는 아직도 비구름에 덮여 보이지 않았다. 봉갑사 부근 산길도 마찬가지로였다. 마치 산자락에 진을 친 비구름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의 출입을 거부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연거사는 해암 스님의 사리를 떠올리며 승용차 기어를 2단으로 바꿨고 오르막 산길을 올랐다. <계속>

##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 **7일 철야 용맹정진** 여름·겨울 두 차례 운영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